

## 섬세하고 넉넉한 배려심을 가진 충북지원 유응수 차장

고객홍보팀

그는 여러모로 겸손하다. 자신에 대한 특별한 업무능력보다는, 항상 나보다 팀을 우선시하고 나보다 선후배를 먼저 생각하며 상호간 신뢰도 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제나 배려심 넘치는 충북지원의 유응수 차장을 만났다.



---

시간과 인력의 부족함 속에서  
수행한 유통조사를 잘 취합·분석하고  
잘못된 부분과 의심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온 그는  
이제는 취합한 데이터만 보아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



축평원 2기로 1993년 입사하여 내년이 입사 25주년을 맞는다는 그는 그동안 충북을 포함하여 여러 지역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충북지원 총주출장소장으로 임기 중이다. 그는 품질평가원의 업무는 물론, 총주관할지역 내 시청·축협·생산농가·유통업체 등과 활발한 교류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역할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축평원 입사

1992년 건국대 학과교수 소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알게 되었다는 그는 대학시절 가공장, 도축장 등 농장체험 등을 많이 해봐서 도축장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축산물 등급판정 사업이고 정부 위탁사업이라는 매력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에 끌려 입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크다.”고 말한다. 입사 초반에는 축산물 품질평가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고 규정을 만들어 지켜나가는 시기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특히, 소등급판정 규정 준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체나 신청인들로부터 욕설은 기본이고 멧살잡이는 애교수준일 정도였더니 겪어보지 않은 입장에서라도 어느 정도였는지 가능할만하다.

#### 우수직원상(유통 분야) 수상

2016년 우수직원상(유통 분야)을 수상한 그에게 수상소감을 물으니 “혼자만의 노력의 결실이라기보다 지원의 유통조사를 성실하게 임해준 모든 선후배의 노력이 있었기에 상을 받았다.”며 겸손의 미소를 지었다. 각 지원에는 유통조사반장이 한명씩 있는데 그가 분기별 유통조사를 총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축평원의 새로운 사업 분야인 축산물유통조사 업무는 등급제, 이력제에 이어 미래 축평원의 새로운 블루칩이다. 유통정보처의 사활을 건 업무개발과 노력으로 각 지원에서 그



노력과 마음을 알고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간과 인력의 부족함 속에서 수행한 유통조사를 잘 취합·분석하고 잘못된 부분과 의심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데이터를 작성하였기에 이제는 취합한 데이터만 보아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그다.

### 퇴직 후의 모습

충북은 그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충북지역의 자량이 입에 침이 마를 정도다. 누구나 오고 싶은 지원, 직원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 근무하고 일명 '으뜸 충북'이라며 충주출장소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설명했다. 정년퇴직 이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전원생활을 하며 봉사활동을 하고 그동안 바빠서 못 갔던 여행을 가고 싶다며 웃는 그는 "고향인 월악산 근처에 터전을 마련하여 조그만 텃밭도 가꾸고 전원생활을 하며 사회봉사단체와 종교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조용하고 열정적으로 생활하고 싶다."며 "그동안 직장생활에 바빠서 소홀했던 가족과 친구들과 많은 여행을 통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들려주었다. ☺